

久菴 韓百謙의 方領 深衣說 研究

— 조선시대 심의설과 대비하여 —

池 金 莞*

<目次>

- | | |
|---------------------------|------------------------------|
| I. 머리말 | IV. 方領 深衣說의 後代 수용과
그 추이 |
| II. 朝鮮 中期 深衣制와
몇 가지 쟁점 | V. 맺음말 |
| III. 久菴의 方領 深衣說 | |

<국문 초록>

본고는 조선 중기의 심의설에 대해 살펴보고, 구암의 方領 深衣說을 통해 그만의 경전 해석방법과 방령 심의설의 특징 및 영향에 대해 고찰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禮記』 가운데 深衣는 역대 經學家들의 중요 연구 대상이었다. 심의는 삼국시대에 전래되어 상례 및 제례에 착용되었으나 고려 말기에 주자학이 도입된 후부터는 주자의 『가례』에 의거하여 冠婚喪祭의 四禮服, 사대부의 예복 및 儒服으로 사용되었다.

심의에는 直과 方으로 인간의 심성을 바르게 하려는 것에서부터 만물생성 변화의 근원인 陰陽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임란 이후 예제가 무너진 조선 중기에, 유학자들은 이러한 의미를 지닌 심의에 주목함으로써 심성을 바로잡고 세상을 교화하는 유가 예절을 심화시키려 했던 것이다. 즉 심의는 그 형태를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석박통합과정수료
/ bingerea@hanmail.net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철학적 의미 때문에 儒服으로 선호된 것이다.

『예기』, 「深衣」편 및 「玉藻」편에 있는 심의에 대한 내용이 간략해서 그 용어들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정현과 공영달 등이 註와 疏를 붙였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고, 그 결과 후대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해석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쟁점을 일으킨 부분은 ‘續衽鉤邊’과 ‘衽當旁’, ‘曲袷’ 등이었다. 구암은 서경덕의 학문을 계승하여 古禮에 입각한 예설을 주장하였다. 끊임없는 기본 경전 연구를 통해 선현들이 해석한 경전 註疏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육경 본래의 의미를 찾고자하였다. 구암은 심의제도가 『예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오히려 여러 註疏家들에 의해 왜곡되어 경서 본문의 의미가 흐려졌다고 하였다. 나아가 주자 만년의 설과 『주자가례』에 나와 있는 것이 같지 않다는 점에서 『주자가례』에 의문을 제기하여, 『의례』의 「상복」, 『시경』, 『이아』 등의 경전 원문을 근거로 해박한 고증을 하고, 字意를 중요시 하면서 『예기』 본문에 대한 정밀한 해석을 함으로써 새로운 심의 양식의 ‘방령 심의설’을 만들었다. 이것은 古禮에도 부합하고 착용하기에도 편리한 심의 연구에 대한 물꼬를 트었고, 당시는 물론 후대까지 심의설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증폭시켰다.

또한 후기 실학자들의 실용적 복식 개념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여 현실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구암, 한백겸, 예기, 주자가례, 심의, 방령심의, 실학

I. 머리말

『禮記』에서 深衣는 經學家들의 중요 연구 대상이었다.¹⁾ 심의는 『예기』

1) 심의에 대해 연구한 주요 경학가는 다음과 같다. 後漢 때 鄭玄(127~200), 남북조 시대에 皇侃(488~545), 熊安生(498~578), 孔穎達(574~648) 등은 『禮記』에 註와 疏를 달았고, 남송 때 朱熹(1130~1200)는 『家禮』를 편찬하였으며, 蔡淵(1156~1236)은 『家禮』에 註를 달았다. 그 후 원나라 때 陳澧(1261~1341)는 『禮記集說』을, 명나라 때 胡廣(1370~1418)은 『禮記集說大全』

「深衣」편 및 「玉藻」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이 너무 간략해서²⁾ 그 용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후대학자들 사이에 相異한 해석이 생겨난 것도 深衣 자체가 그 원인을 제공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禮書인 『朱子家禮』 또한 비교적 간략하게 심의를 설명하고 있어 학자들 역시 정확한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후대의 많은 학자들은 심의를 두고 다양한 주석서와 함께 저마다 해석을 가하여 이러저러한 禮書를 편찬하였다. 久菴 韓百謙(1552~1615) 역시 나름의 시각으로 심의를 해석하였다.

한백겸은 본관이 淸州, 字는 鳴吉이고, 號는 久菴이다. 아버지는 鏡城 判官을 지낸 韓孝胤(1536~1580)이고, 어머니 貞敬夫人 申氏는 禮賓寺正 申健(?~?)의 딸이다. 그는 經典을 깊이 탐구하여 『周易』에 정통하였으며³⁾ 禮에 능통하였다. 宣祖 승하 시 전란 중에 儀軌가 모두 유실되어 禮官이 당황하고 있을 때, 대신들이 한백겸이 禮를 잘 안다고 추천하여 한백겸에게 殯殿의 일을 맡겼다.⁴⁾

을 편찬했고, 丘濬(1421~1495)은 『家禮儀節』을, 司馬光(1019~1086)은 『書儀』를 편찬하였다. 청대 黃宗羲(1610~1695)는 『深衣考』를, 江永(1681~1762)은 『深衣考誤』를 편찬하였다.

- 2) 『禮記』 卷58. 「深衣」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古者深衣, 蓋有制度, 以應規矩繩權衡. 短毋見膚, 長毋被土, 續衽鉤邊, 要縫半下, 袼之高下, 可以運肘. 袂之長短, 反詘之及肘. 帶, 下毋厭髀, 上毋厭脅, 當無骨者. 制十有二幅, 以應十有二月. 袂圓以應規, 曲袷如矩以應方, 負繩及踝以應直, 下齊如權衡以應平. 故規者, 行舉手以爲容, 負繩抱方者以直其政, 方其義也. 故易曰, 坤六二之動, 直以方也. 下齊如權衡者, 以安志而平心也. 五法已施, 故聖人服之. 故規矩取其無私, 繩取其直, 權衡取其平, 故先王貴之. 故可以爲文, 可以爲武, 可以擯相, 可以治軍旅. 完且弗費, 善衣之次也. 具父母, 大父母, 衣純以纁. 具父母, 衣純以青. 如孤子, 衣純以素, 純袂, 緣純邊, 廣各寸半.” 총 236자의 짧은 내용이다.

『禮記』 卷29, 「玉藻」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朝玄端, 夕深衣, 深衣三袂, 縫齊倍要, 衽當旁, 袂可以回肘. 長中繼揜尺, 袷二寸, 袂尺二寸, 緣廣寸半.”

- 3) 『宣祖實錄』, 「宣祖 27年(1594) 11月 12日」, “정경세가 아뢰기를, ‘소신은 역학을 전혀 모르는데 대신이 이처럼 잘못 아뢰니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신이 듣기로는 서울 朝官 중에 한백겸이란 자가 있는데 꽤 역학을 안다고 합니다.’”

한백겸은 부친상과 조모상을 연달아 당해 과거시험을 포기하여 과거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1585년 34세에 학문으로 천거 받아 교정랑이 된다. 이를 시작으로 中部參奉, 周易講官 등을 거쳐 44세에 安岳縣監에 제수 되고, 咸從縣令, 寧越郡守, 淸州牧使, 坡州牧使 등을 지내면서 ‘아전들은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좋아하는[吏畏民悅]’ 강직한 목민관으로 정성을 다해 고을을 다스려 치적을 남겼다.⁵⁾ 목민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당대는 물론 후세에까지 영향을 끼친 작품들을 쓰기도 하였다. 그의 실증적 학문 태도가 엿보이는 「箕田遺制說」은 기록으로 전해진 箕田을 직접 실측하고 고증해서 쓴 것으로 조선시대 후기 실학자들의 토지개혁안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또 구암이 후대의 제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글로 「貢物變通疏」가 있다. 그는 공물제도의 심각한 폐단을 지적하고, 왜곡된 공물제도를 혁신하여 平賦均民 함으로써 맹자의 위민정신의 근본을 구현할 수 있다고 건의하고 있다.⁶⁾ 이 「공물변통소」의 내용은 당시 영의정이던 李元翼에 의해 채택될 정도로 현실적인 개혁안으로 평가를 받아 후에 이원익의 주선으로 宣惠廳이 설치되고, 京畿지역에 大同法을 시행하기에 이른다.⁷⁾

4) 李裕元, 『林下筆記』(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1.), 卷16, 「文獻指掌編」, p.372, “그런데 이 때 兵火를 겪은 뒤라 儀軌가 散失되어서 禮官이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자 대신들이 韓百謙이 禮에 익숙하다 하여 재촉하여 들어와서 殯殿의 일을 보도록 하였는데, 糞과 殮의 모든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가 있었다.”

5) 『宣祖實錄』, 「宣祖 37年(1604) 5月 2日」, “백겸은 정사를 공정하게 다스렸으므로 아전들은 두렵게 여기고 백성들은 기뻐하였다. 그가 부임했던 곳에서 는 모두 체직된 뒤에도 그리워하였다.”

6) 韓百謙, 『久菴遺稿』(『韓國文集叢刊』 59, 民族文化推進會, 1991.) 下, 「貢物變通疏」, p.185.

7) 정경세가 쓴 「韓公墓碣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貢物の 폐단이 백성들에게 큰 폐해가 되고 있음을 논하였으며, 겸하여 제도를 개혁하는 계책을 진달하였는데, 節目이 아주 상세하였다. 일을 廟堂에 내리니 相公 李元翼이 정사를 총괄하고 있으면서 그 말을 좋게 여겨 宣惠廳을 두어 먼저 畿甸지역에서 시행해 보기를 건의하였다. 지금에 이르러서 기전의 백성들

구암의 역작인 『동국지리지』는 후대의 학자들에게 역사지리에 대한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국가 경영에 있어 國境과 지역의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밝혔다. 그는 여기서 문헌고증을 통한 실증적인 방법으로 三韓의 위치를 새롭게 비정하였다. 이는 반계나 성호, 다산 같은 후기 실학자들의 역사 지리학 연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한백겸은 젊어서 徐敬德(1489~1546)의 門人인 翫靜 閔純(1519~1591)의 문하에 들어가 독실하게 학문을 연마하였다. 따라서 그는 서경덕의 학문을 계승하여 古禮에 입각한 예설을 펼쳤다. 한백겸은 예제의 근본을 古制를 근거로 하였으며, 경전을 근거로 정밀하게 고증하는 방법으로 선현의 경전 註疏를 비판하고, 육경 본래의 의미를 찾는 데 주력하였다. 『주자가례』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나, 정현이 해석한 심의제도를 부정확한 것으로 본 것도 육경 본래의 의미를 찾는 것의 일환이었다.⁸⁾ 그는 ‘續衿鉤邊’과 ‘曲袷’ 등을 두고 독자적인 설을 제시하여 새로운 형태의 方領深衣를 주장하였다.⁹⁾ 이러한 독자적인 구암의 방령심의가 가지는 구체적인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그것이 구암이 살았던 조선 중기 심의제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점이 후대에 어떤 끼친 영향

이 안도하면서 숨을 돌리게 된 것은 실로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이다.”(鄭經世, 『愚伏集』(『韓國文集叢刊』 68) 卷18, 「通政大夫戶曹參議韓公墓碣銘」, p.326.) 『光海君日記』 기사에 이원익이 선혜청 설치를 건의하는 내용이 보인다. (『國譯 光海君日記』 「即位年 (1608) 5月 7日」.)

8) 구암이 정현이 오인 했다고 지적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옥조』에 이르기를 ‘옷선은 가장자리에 있다[衿當旁]’라고 하였는데, 가장자리는 즉 천[衿] 폭의 옆이다. 정현이 ‘옆’을 ‘사람의 양옆’이라고 잘못 해석하였다.”(韓百謙, 『久菴遺稿』, p.164.)

9) 정혜경은 심의는 형태상 기본적으로 直領을 이루고 있으나 깃[袷]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다양한 형태의 깃이 대두되었다고 하였다. 문헌기록상 漢·唐 대에는 交領, 曲領이라 하였으며, 宋代 이후에는 주로 방령이라 하였다. 그런데 宋代 이후 方領의 형태는 直領으로서 착장 시 옷깃을 여미면 방령을 이룬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구암에 의해 실제로 깃의 형태가 정방형인 방령의 심의가 제시되었다고 하였다. (정혜경, 『深衣』, 경남대학교출판부, 1998, p.18. 참조.)

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朝鮮 中期 深衣制와 몇 가지 쟁점

1. 조선 중기의 深衣制

심의는 삼국시대에 전래되어¹⁰⁾ 상례 및 제례에 착용되었으나 고려 말기에 주자학이 도입된 후부터는 『주자가례』에 의거하여 冠婚喪祭의 四禮服, 사대부의 예복 및 儒服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宋代 이후에 심의가 유학자들에게 널리 사용되었던 흐름이 우리나라에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러다가 조선 중기에 오면 예학이 성행하고 주자 예법이 널리 퍼지면서 유학자들은 四禮服 및 儒服으로 심의를 숭상하였고, 이와 함께 심의 제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심의는 어떤 의복인가? 丘濬(1421~1495)의 『家禮儀節』¹¹⁾에 의하면 宋나라의 司馬光(1019~1086)이 처음으로 옛 제도를 모방해서 심의를 만들어 한가로이 거처할 때에 입는 옷으로 삼았으며, 주자 역시 심의를 만들어 입었다고 한다.¹²⁾ 또한 呂大臨(1046~1092)¹³⁾은 『예기』, 「심의」 편 註

10) 정혜경은 삼국시대 유학의 수용과 더불어 상례 및 제례의 기풍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예기』와 정현의 註에서 보듯이 상례 및 제례에 필수적인 심의 역시 착용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혜경, 앞의 책, 1998, p.38. 참조.)

11) 『家禮儀節』은 『주자가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것의 각 항목들을 儀節化한 것이다. 실제로 조선은 이 『가례의절』을 통해 비로소 『주자가례』를 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 『가례의절』이 『주자가례』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기도 하였다. 조선에는 1518년 수입·간행되었다. (이승연, 「丘濬의 예학에 관한 고찰: 『家禮儀節』을 중심으로」, 『東洋禮學』 제11집, 동양예학회, 2003, p.5.)

12) 丘濬, 『家禮儀節』(四庫全書存目叢書經部, 禮類; 114, 齊魯書社, 1997.) p.449, “宋司馬溫公, 始做古制深衣以爲燕居之服, 而文公先生亦服之.”

13) 呂大臨: 북송 京兆 藍田사람으로 자는 與叔이다. 呂大鈞의 동생이다. 처음에 張載에게 배웠고 스승이 죽은 뒤에는 程顥·程頤에게 배웠으나 장제에

에서 심의는 천자로부터 士·庶人에 이르기까지 상하가 같은 이름으로 동등하게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吉凶事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입을 수 있는 간편한 옷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⁴⁾ 조선의 경우 沙溪 金長生(1548~1631)은 이 심의를 옛 제도대로 만들어, 살아서는 한가로이 거처할 때에 입고, 죽어서는 襲斂을 하는 옷으로 쓸 수 있도록 모두 구비하여 古禮를 회복하는 데 힘쓰기를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다.

다행히도 주자의 도가 지금 세상에 크게 밝혀져 『가례』가 일반 백성들의 집에서 일상적으로 쓰여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될 책이 되었다. 그러니 관직에 있는 자들은 참으로 時制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은거하여 벼슬하지 않은 자나 벼슬에서 물러나 집안에 거처하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옛 제도에 따라 한 벌을 만들어, 살아서는 제사를 지낼 때나 한가로이 거처할 때에 입는 옷으로 삼고, 죽어서는 襲斂을 하는 데 쓰는 옷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이 어찌 古禮를 회복하는 한 가지 단서가 아니겠는가.¹⁵⁾

[그림1] 『家禮輯覽圖說』 심의도



[그림2] 『士儀』 심의도



게 배운 이론을 바꾸지 않았다고 한다. 형 大鈞과 함께 질서유지와 상호부조를 위해 향리에서 呂氏鄉約을 조직했다. 여대림은 六經에 정통했고, 특히 『禮記』에 밝았다. 禮學에 밝아 예의를 중시했으며, 정자의 예학을 계승하여 心性之學에 치중했다. 『古文眞寶』 文篇 卷5에 銘類가 다섯 편 실렸는데 그 중 여대림의 「克己銘」이 유명하다.

14) 『禮記』 卷58, 「深衣」, p.1823.

15) 金長生, 『沙溪全書』(한국고전 종합DB[<http://db.itkc.or.kr>], 한국고전번역원.) 卷25, 「家禮輯覽 通禮」. (검색일: 2014. 07. 05)

옷이 몸체를 깊숙하게 덮으므로 深衣라고 이름 하였지만, 심의는 그 형태에서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심연한 의미를 담아 의복 본연의 용도 보다는 儒家의 철학적 의미를 구현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즉 의복을 하나의 小宇宙로 보고 그 옷을 입고 있는 인간의 몸가짐을 天道로 다스리게 함으로써 人道를 바르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한 것이다.

先人들은 인간을 소우주로서 천지를 상징하는 존재로 여겼으며, 이들이 착용하는 심의에도 역시 우주의 원리를 담고자 하였다. 그래서 우주와 인간과 의복이 조화를 이루어 자연의 원리[天道]를 본받아 인간이 행해야 할 바[人道]를 이루고자 하였다.¹⁶⁾

『예기』에 기록된 심의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각 부분에 이러한 철학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¹⁷⁾ 이를 통해 심의를 착용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정화시켜 항상 올바르게 다스리려 했음을 볼 수 있다.

조선 중기에는 禮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禮論과 禮說의 연구가 심화되고, 아울러 심의에 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여러 학파의 학자들에 의해서 예서의 내용과 체제도 변화 발전하여 祭禮書, 喪祭禮書, 四禮書가 차례대로 저술되었다. 선조이후 예설의 주류는 『國

16) 정혜경, 앞의 책, 1998, p.13.

17) 『예기』, 「심의」편 경문을 통해 심의 구성에 담겨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크게 5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①열두 폭으로 지어서 열두 달을 상징했다.[制有十二幅 以應十二月] ②소매는 둥글게 해서 規(원형)을 그리는 제구를 상징한다.[袂圓以應規] 소매는 둥글게 해서 規를 상징하였는데, 둥근 것은 하늘의 體이다. 즉 심의의 둥근 소매는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다. ③曲袷은 矩처럼 만들어서 반듯함[方]을 상징한다.[曲袷如矩應方] ④負繩은 복사뼈[蹠]에 이르게 하여 곧음[直]을 상징한다.[負繩及蹠以應直] 윗옷의 등술기와 치마의 등술기가 먹줄로 바른 듯이 위에서 아래로 곧게 내려간 것처럼 그 정치를 바르게 하라는 뜻이 담겨 있고, 모난 옷깃처럼 그 의를 바르게 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심의는 입고 걸으면서 손을 올려도 이 부분의 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곧고 바른 선을 등에 짊으로써 정치를 곧게 하고 의리를 바르게 한다는 철학적 의미가 내포된 것이다. ⑤아랫단[下齊]의 바느질을 저울대처럼 하여 공평[平]을 상징한다.[下齊如權衡以應平]

朝五禮儀」나 漢唐書를 비판하고, 고례와 『주자가례』의 내용을 중시하였다. 예서 역시 『주자가례』의 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보완하거나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¹⁸⁾ 이러한 학술 분위기 하에서 많은 예서들이 편찬되었는데 그 중 심의와 관련한 것으로는, 宋翼弼(1534~1599)의 『龜峯集』 卷7, 「家禮註說」·李彦迪(1491~1553)의 『奉先雜儀』·鄭述(1543~1620)의 『五先生禮說分類』·曹好益(1545~1609)의 『家禮考證』·金長生(1548~1631)의 『疑禮問解』, 『家禮輯覽』과 『家禮輯覽圖說』·申湜(1551~1623)의 『家禮諺解』·申義慶(1557~1648)의 『喪禮備要』·俞啓(1607~1664)의 『家禮源流』·安玘(1569~1648)의 『家禮附贅』 등을 들 수 있다.¹⁹⁾

조선 중기 사회에 있어서 심의에 대한 인식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退溪言行錄』을 보면 金就礪가 幅巾과 심의를 만들어 보내오자 퇴계는 “복건은 마치 僧巾과 같아서 쓰기에 마땅하지 않다.”라 하고, 심의를 입고 程子冠을 썼다고 한다. 말년에 재실에 있을 때는 이렇게 입다가, 손님이 오면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는 내용이 보이고, 또 庚午年(1570)에는 심의를 입고서 친히 사립문을 열고 이덕홍을 불러 이르기를, “오늘은 옛사람의 의관을 시험하고자 한다.”²⁰⁾라 하였다. 이러한 언급을 통해 당시 심의를 만들어 선물했음을 알 수 있고, 퇴계가 심의를 일상복으로 입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曹好益(1545~1609)은 『주자가례』 중 명확히 이해해야 할 내용에 대해 출처와 연원을 밝히고, 자신의 견해를 첨부하여 『家禮考證』을 편집하였

18) 김영진, 「17세기 초 예학의 새로운 흐름-한백겸과 정구의 예설을 중심으로」, 『韓國學報』 18, 일지사, 1992, p.103.
 19)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조선시대의 가례와 의례 등에 관한 자료를 한데 모아 2008년에 출간한 『한국예학총서』를 참고하였다.
 20) 權斗經, 『退溪先生言行錄』(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7.) 卷3, p.566, “金就礪造幅巾深衣以送。先生曰, ‘幅巾似僧巾(言失其制), 著之似未穩’ 乃服深衣, 而加程子冠。晚年齋居如此, 客來則改以常服焉.-金誠一- 庚午九月, 自陶山將返溪堂, 冠程子衣深衣 自京初造來, 親啓柴門, 招德弘曰, ‘今日試欲古人衣冠耳’-李德弘-”

으며, 선조 11년(1578)에 심의와 縹布冠을 만든 뒤 「심의」 시를 짓기도 하였다.²¹⁾ 이는 유배지에서 자신이 평소 연구해온 『주자가례』의 심의를 구현했던 것이다. 그는 심의가 고제를 보존하고 있는 복식으로 요순시대의 유풍이라고 여기며 많은 이들이 심의를 익숙한 풍속으로 받아들여 古禮로 복귀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조호익의 연보에는 『예기』, 「옥조」를 바탕으로 명나라 학자인 瓊山 丘濬의 설을 참고하여 古禮의 제도대로 深衣와 縹布冠을 만들어 착용하니, 관서 지방의 백성들이 모두들 경탄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²²⁾ 그리고 金堉(1580~1658)이 저술한 그의 「行狀」에 “深衣에 幅巾 차림으로 그 가운데 단정하게 앉아 곁에는 서책을 쌓아 놓고 깊이 파고들었다.”²³⁾는 내용이 있다. 조호익이 古制대로 지은 심의를 입고 생활하면서 주자의 예법을 따르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예서의 연구가 깊어지고, 심의가 재인식 되고 있는 당시 시대모습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深衣說의 몇 가지 쟁점

深衣는 그 형태가 목체를 깊숙하게 덮으므로 ‘深’이라는 뜻을 취하여 명명된 것이다. 漢代 이후의 중국 고대의 복식제도는 다른 민족들의 복식과 혼용되면서 원형을 잃어갔지만 거의 유일하게 상복과 더불어 심의는 고대의 복식제도를 그대로 전하고 있었다. 고대의 복식제도라는 점

-
- 21) 曹好益, 『芝山集』(『韓國文集叢刊』 55) 卷1, 「深衣」, p.455, “치포관과 심의의 옛 제도 수수하니 꾸밈없이 순박한 요순시대 유풍이라네. 만나거든 세상을 놀래킨다 이상하게 생각마오 은주 시대 이전의 사람이라 불려도 될 것이네 [縹撮深衣古制淳 唐虞遺像是天真 相逢莫怪多驚俗 喚做殷周以上身]”
- 22) 曹好益, 『芝山集』附錄 卷1, 「年譜」, p.555, “製深衣縹布冠, 質諸記玉藻, 參以丘瓊山說. 製爲古制, 時時服之, 西人莫不驚歎.”
- 23) 曹好益, 『芝山集』附錄 卷2, 「行狀」, p.569, “又構數架之屋, 齋曰遂志, 堂曰風雷. 深衣幅巾, 端坐其中, 左右圖書, 沉潛玩繹.”

이 과거의 유학자들에게, 또한 현대의 연구자들에게 깊은 매력을 끄는 것이다.²⁴⁾ 『예기』에 있는 심의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였기에 그 용어들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정현과 공영달 등이 주와 소를 붙였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고, 그 결과 후대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해석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쟁점을 일으킨 부분은 ‘續枉鉤邊’과 ‘枉當旁’, ‘曲裕’ 등이었다.

16세기에는 『주자가례』를 거의 그대로 따르면서 『儀禮』를 중심으로 士禮를 강조하는 흐름과 『주자가례』의 틀을 따르면서 『예기』를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흐름이 존재하였다.²⁵⁾ 즉 유자들의 예에 관한 지침서였던 『주자가례』에 언급된 내용과 『예기』, 「심의」에 기술된 내용이 간결하고 상징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당시 유학자들에게 심의제도에 대한 연구와 논쟁의 열기를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다음의 鄭述가 金長生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시 심의에 대한 논란이 어떠했는지 엿볼 수 있다.

전에 韓鳴吉[韓百謙]이 저에게 보내 준 심의제는 제가 나름대로 만들었던 제도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장을 보내 자세히 따져 논의할 생각으로 대략 초안을 만들었지만 적당한 인편이 없어 미처 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저의 문하생이 그 고장을 지날 일이 있어 한명길을 만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는데, 마치 제가 그의 심의제에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한명길은 설명을 듣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대로 의견을 주고받아 시비를 가려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미처 그렇게 하기도 전에 뜻밖에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니 깊은 슬픔을 가눌 길 없었습니다.²⁶⁾

정구는 김장생에게 편지를 보내 구암이 말한 심의제가 자신의 생각과

24) 유권중, 「다산 정약용의 심의설 연구」, 『退溪學報』 제105집, 퇴계학연구원, 1999, p.80.

25) 고영진, 『조선 중기 예학사상사』, 한길사, 1996, p.272.

26) 鄭述, 『寒岡集』(『韓國文集叢刊』 53), p.154.

많이 다르고 불합리하여 시비를 가려보려 생각했는데 그가 죽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음을 아쉬워하고 있다.

김장생이 『家禮輯覽』에 수록한 심의제의 경우는 『주자가례』의 체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따라서 續衽鉤邊에 대해 “가장자리를 합하여 꿰맨 다음에 다시 덮어 꿰매어서 옷을 입을 때에 편하게 하는데, 합하여 꿰맨 것을 續衽이라고 하고, 덮어서 꿰맨 것을 鉤邊이라고 한다.”²⁷⁾라고 『주자가례』와 거의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다.

정구는 「심의제조법」에서 “윗옷과 치마의 안팎을 옆에 잇대어 붙여서 마치 오늘날 일상적인 의복의 제도처럼 하는 것이 곧 이른바 續衽이다. 그리고 그 옆의 비스듬히 재단한 부분을 반드시 접어 붙여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찌 이른바 鉤邊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하면 옷을 입을 때에 편안하고 깊숙이 몸이 가려져서 실로 당초에 深衣라고 명명한 본의에 합당하게 된다.”²⁸⁾라고 하였다.

반면 구암은 『儀禮』, 「喪服」을 근거로 衽이 옷 앞의 양면 衿[襟]이라고 보고, 옷옷과 치마가 한데 연결되어 양 衿이 나란히 맞닿아 연결되어 있는 것을 ‘續衽’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이전의 다른 유학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었다. 또한 그는 ‘鉤邊’은 지금의 단추 종류인 달마기[結紐]²⁹⁾를 양쪽 衿이 벌어지지 않도록 달아놓은 것이라고 하고, 일종의 對襟³⁰⁾에 해당하는 箕排領[뚝지]³¹⁾을 심의의 遺制라고 하였다.

27) 金長生, 『沙溪全書』 卷24, 「家禮輯覽圖說」.

28) 鄭述, 『寒岡集』 卷9, 「深衣製造法」, p.268, “連續於衣裳之內外, 旁有若今常衣之法. 是所謂續衽, 而其邊之斜裁處, 必須鉤之貼之, 使不解破者, 豈非所謂鉤邊者乎? 如是則被服之際, 方是穩帖, 而隱然深邃, 實稱當初深衣命名之本義矣.”

29) 달마기[結紐]: 단추의 방언[평북]으로 현재는 달마귀로 쓴다.

30) 對襟: 대금은 마주하면서 겹치지 않는 두 衿이 있고, 가슴 가운데 부분에 단추가 달려 있는 옷옷을 말한다.

31) 箕排領[뚝지]: 갑옷이나 마고자 따위의 옷깃 아래에 달린 긴 형질. 앞이 여며지지 않고, 두 쪽이 나란히 맞닿아 있다.

또 하나 논란이 많은 구절인 ‘衽當旁’은 ‘衽은 가장자리에 해당된다.’는 뜻으로 ‘續衽鉤邊’과 함께 논의되는 부분이다. ‘衽’이 어느 곳의 가장자리인가 하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즉, ‘衽’이 치마폭의 가장자리인지, 사람 몸의 가장자리인지 의견이 분분한 것이다.

정경세는 “衽의 양쪽 곁이 서로 맞닿아 있다는 말이지, 衽이 몸체 곁에 있음을 말함이 아니다.”³²⁾라고 하였고, 정구도 裳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³³⁾, 許傳(1797~1886)은 상의의 앞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구암은 정현이 옆을 사람의 양옆이라고 오인하였다고 보고 衽자를 무리하게 해석하려 해서 안 되며, 치마폭[裳幅]이 서로 맞닿는 데를 衽이라고 한다고 해석하였다.³⁴⁾

여기서 논란이 되는 曲袷의 경우 『예기』 본문을 보면, “曲袷은 옷깃을 구(矩)처럼 만들어서 반듯함[方]을 상징한다[曲袷如矩應方]”라고 되어있다. 주자는 양쪽 옷깃을 서로 교차하면 네모반듯한[方] 모양이 이루어진 다[曲袷]고 하였고, 정경세는 방령의 제도가 본디 모난 것이지, 옷깃을 교차한 뒤에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³⁵⁾ 한편 구암은 ‘曲袷’에 대해 상복처럼 옷깃을 네모나게 재단하여, 2치의 검은 비단으로 그 가장자리를 두르기 때문에 ‘曲袷’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³⁶⁾ 요컨대 당시 학자들 사이에 심의를 두고 여러 논쟁들이 끊임없이 펼쳐졌는데 이 가운데 구암의 방령 심의설은 자신만의 독자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32) 鄭經世, 『愚伏集』 卷9, 「答權仲明(昉)論深衣(戊辰)」, p.176. “禮所謂衽當旁者, 謂衽之兩旁相當, 非謂衽在身旁也.”

33) 鄭述, 『寒岡集』 卷9, p.264.

34) 韓百謙, 『久菴遺稿』 上, 「深衣說」, p.164. 참조.

35) 鄭經世, 『愚伏集』 卷9, 「答權仲明(昉)論深衣(戊辰)」, p.177. “禮曰, 曲袷如矩以應方. 詳味其文則乃是其制本方, 似非既交自方之謂也.”

36) 韓百謙, 『久菴遺稿』 上, 「深衣說」, p.164, “衣領兩邊當頤領處, 裁割取方, 如今喪服前闊中之制以安項, 而以二寸阜絹純其邊, 故云曲袷.”

Ⅲ. 久菴의 方領 深衣說

1. 方領 深衣說의 내용과 특징

실학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는 구암³⁷⁾은 비판적 태도로 학문을 대하였다. 이러한 그의 사고는 「東史纂要後序」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東史纂要後序」에서 기존의 崔致遠(857~?)과 權近(1352~1409)의 三韓·四郡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며 자신의 견해를 여러 역사서에서 고증하여 삼한의 위치를 새롭게 비정하였다. 그러면서 구암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후대에 읽는 자들이 항상 지금 사람들이 예전 사람만 못하다고 하면서 반드시 신봉하려고만 하고 전혀 의심하지 않으니 이 또한 잘못이다.³⁸⁾

즉 성현들의 학설을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구암의 생각이다. 이런 사고를 바탕으로 한 『예기』에 대한 재해석은 방령 심의설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구암 이전에 이황(1501~1570)이 『주자가례』 본문 내용에 의문을 품고 실제로 옷을 만들어 입어본 뒤, 옷의 형태가 어그러져 불편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37) 남명진은 구암이 실학의 선학적 존재임을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공물변통소」나 「기전유계설」에 대한 학문적 태도 등에서 볼 수 있는 점들도 역시 후기 실학사상에의 문을 열어준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따라서 한백겸은 조선 후기 실학의 선학적 사상가요 학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명진, 「구암 한백겸」, 『한국인물유학사』 2, 한길사, 1996, p.969. 참조.)

38) 韓百謙, 『久菴遺稿』上, 「東史纂要後敘」, p.176, “後之覽者, 每以古今人不相及, 必欲奉信, 而不敢疑, 其亦過矣.”

『주자가례』와 『주자대전』의 글과 深衣圖에 裳의 앞뒤 폭은 각각 6폭이다. 앞 부분은 왼쪽이 오른쪽을 덮어 겹쳐져서 6폭이던 것이 3폭이 되는데, 그대로 6폭의 너비인 뒷부분과 맞아야 하니 그 모양과 제도가 어그러져 서로 맞지 않는 점을 늘 의심했다. 그래서 丘濬(1421~1495)의 방법을 써도 될 듯했지만 지금 제작한 것은 구준의 설을 이용하지 않고 『주자가례』의 방식만을 따라 상의 4폭과 하상 12폭으로 제작하였더니, 앞뒤 폭도 어그러지지 않아 착용하기에 편하였다. (중략) 구준의 방법을 이용하면 曲袷에는 맞지만 너무 천착하여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냈다는 혐의가 있을 듯하다. 이제 『주자가례』에 의거하여 자연스럽게 본체를 얻게 되었지만 曲袷의 경우 약간 미흡한 점이 있을 뿐이다.³⁹⁾

이황은 『주자가례』와 『주자대전』의 글과 深衣圖를 분석해서 앞뒤의 너비가 일치하지 않아 옷 모양새가 어그러짐을 발견하고 의문을 품었다. 그럼에도 그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냈다는 혐의를 염려해 丘濬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주자가례』의 제도를 적극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16세기 후반으로 오면서 주자의 심의 제도를 따르는 분위기에서 거기에 부분적 오류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적절하게 재해석하거나 수정하려는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었다. 구암 역시 이런 시대흐름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자가례』의 심의 착용법은 양쪽 옷깃을 교차하여 가리는 것[交衽]이다. 양쪽 옷깃을 교차해서 왼쪽 옷깃을 우측 옆구리로 오게 하고, 오른쪽 옷깃을 좌측 옆구리로 오게 하면 양 깃은 方의 모양이 이루어진다[曲袷]. 이것이 ‘곡겹은 矩처럼 만들어서 반듯함[方]을 상징한다[曲袷如矩以應方]’는 경문에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주자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모양이 비록 각진 모양일지라도 정방이 아니라 斜方(일종의 마름모)이 되는 까닭에 경문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문이 제기된다.⁴⁰⁾

구암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주자가례』의 가치는 존중하지만 주자

39) 李滉, 『退溪集』(『韓國文集叢刊』 30) 卷29, 「答金而精」, p.209.

40) 유권중, 앞의 논문, p.89. 참조.

앞에 『예기』 경문을 놓아두고, 註나 疏에도 읽매이지 않고 『의례』, 『詩經』, 『爾雅』 등 古禮와 六經을 근거로 하여 경문 자체를 훈고와 고증의 방법으로 해석하였다.

구암은 먼저 경서를 읽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經書を 읽을 때마다, 한 글자의 주석도 그 사이에 섞지 않고, 다만 원문만을 차분하게 곰곰이 그 의미를 생각해서 여러 해가 지나면 거의 저자의 본뜻을 이해할 수 있을 듯하였다.⁴¹⁾

즉 이해를 돕기 위해 『예기』 경문에 붙인 註나 疏에 의해 오히려 본의가 왜곡되어 경서 본문의 의미가 흐려지게 되었다고 보고, 『예기』 경문 자체를 숙독하여 본래 의미를 궁구하라는 것이다. 그는 이런 학문태도로 「심의」 편의 쟁점이 되는 부분인 ‘續衽鉤邊’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續은 연결되었다는 뜻이다. 『儀禮』, 「喪服」에 ‘소매는 폭에 연결되어 있다.[袂屬幅]⁴²⁾고 하였으니, 古字에 ‘續’과 ‘屬’은 통용되었다. 衽은 옷 앞의 양쪽 衿[襟]이다.⁴³⁾ 옛날 옷은 다 옷깃과 치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치마는 한 면으로 허리를 둘러 앞면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게 하였다. (중략) 그러나 심의만은 옷깃과 치마가 한데 연결되어 옷깃에서부터 치마 밑단까지 한쪽이 벌어져 있다. 그리하여 한 폭으로 입을 만들지 않고, 다만 양 衿이 나란히 내려가 약간 서로 맞닿아 연결시켰기 때문에 ‘續衽’이라고 한다. 양쪽 衿이 서로 덮지 못하면, 반드시 단추[들마기]를 달아 좌우 양편을 채워 놓는다. 그런 뒤에는 벌어질 염려가 없기 때문에 또 ‘鉤邊’이라고 하였다. 지금의 箕排領[돋지]은 바로 심의의 遺制이다.⁴⁴⁾

41) 韓百謙, 『久菴遺稿』 上, 「深衣說」, p.163, “每讀經書, 不用一字訓詁參錯其間, 直將白本, 平心玩索, 積有年紀, 庶幾或得作者之意.”

42) 『儀禮』 卷11, “袂屬幅 屬猶連也 連幅謂不削”

43) 『禮記』, 「檀弓」 “棺束二衡三衽每束一.”; 『疏』, “小要也. 其形兩頭廣, 中央小也, 既不用釘棺, 但先鑿棺邊及兩頭合際處作坎形, 則以小要連之. 今因漢時呼衽爲小要也. 又 屈原『離騷』跪敷衽以陳辭兮. 『註』, 衽, 衣前也.”

44) 韓百謙, 『久菴遺稿』 上, 「深衣說」, p.163.

구암은 『의례』, 「상복」을 근거로 ‘衽’이 옷 앞의 양쪽 衿[襟]이라고 보고, 옷깃과 치마가 한데 연결되어 양 衿이 나란히 맞닿아 연결되어 있는 것이 ‘續衽’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이전의 다른 유학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었다. 또한 그는 ‘鉤邊’은 지금의 단추 종류인 들마기[結紐]를 양쪽 衿이 벌어지지 않도록 달아놓은 것이라고 하고, 일종의 對襟에 해당하는 箕排領[뚝지]을 심의의 遺制라고 하였다. 구암은 또한 續衽과 鉤邊이 모두 깃의 모양과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예기』에 ‘抱方負繩’이라고 하였는데 뒤는 곧게 내려오고 앞은 모나게 되었으니 또한 매우 확실하고 분명하지 않은가? 방령을 만들려면 부득불 續衽을 해야만 하고, 속임을 하려면 또 鉤邊을 해야만 하니, 세 가지 일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 주자가 말하기를 “양쪽 衿이 서로 덮여 깃이 겨드랑이 밑에 있게 되면 양쪽 동정이 합쳐지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모나게 된다.”⁴⁵⁾라고 하였다. 만일 별도의 폭을 써서 깃을 만들지 않고 두 衿을 끌어다가 겨드랑이 밑에 닿게 하려고 한다면 옷이 답답할 수밖에 없으니, 몸을 편하게 하기 위한 의복을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억지로 서로 가리게 한다고 해도 꼭겹은 모난 모양이 되지 못할 것이다.⁴⁶⁾

그리고 『예기』, 「옥조」에 나오는 衽當旁의 ‘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 하였다.

「옥조」에 이르기를 “衽은 가장자리에 해당 된다[衽當旁]⁴⁷⁾라고 하였는데, 가장자리는 즉 衿[衿] 폭의 가장자리이다. 정현이 입을 사람의 양옆이라고 오인하

45) 朱熹, 『家禮』(학민문화사, 2001.) 卷1, 「深衣制度」, p.68, “兩襟相掩, 衽在腋下, 兩領之會自方.”

46) 韓百謙, 『久菴遺稿』上, 「深衣說」, p.163.

47) 『禮記』 卷9, 「玉藻」, “朝玄端, 夕深衣, 深衣三袪, 縫齊倍要. 衽當旁, 袂可以回肘.”

였다. 그러므로 衽자를 설명할 때 무리하게 해석하려 해서 안 된다. 치마폭 [裳幅]이 서로 맞닿는 데를 다 衽이라고 한다. 衽은 본래 옷깃이 마주 닿는 곳의 명칭이기 때문에 대체로 두 물건이 서로 마주 닿는 곳을 비유해서 말한 것도 있었다. 예를 들면 『禮記』, 「檀弓」에 “衽은 묶을 때마다 하나씩 사용한다.”⁴⁸⁾라 하였는데, 주석을 한 사람은 “小要⁴⁹⁾銀錠로 관과 덮개를 연결하기 때문에 명칭을 ‘衽’이라고 했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어디에 치마폭을 바로 衽이라고 한 데가 있었는가? 또 옷깃과 아래치마가 한데 연결 되었으면 치마의 양쪽 가장자리가 모두 앞에 있으니 좌우를 통합해야하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⁵⁰⁾

구암은 『예기』, 「단궁」에 나온 구절을 근거로 정현이 ‘衽이 몸의 양옆에 있다’고 주석을 단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衽은 두 물건이 서로 마주 닿는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천[布] 폭의 가장자리라고 설명하였다.

정경세 역시 “임의 양쪽 곁이 서로 마주 닿는 곳이라는 말이지, 衽이 몸체 곁에 있음을 말함이 아니다”⁵¹⁾라고 하여 정현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深衣三袂’ 구절에 대해서도 경서 원문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종래 학자들과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48) 『禮記』, 「檀弓」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자의 관은 4중으로 한다. 물소와 외뿔들소의 가죽으로 만든 혁관을 씌우는데 그 두께는 3촌이고 피나무로 만든 관이 한 겹이며 가래나무로 만든 관이 두 겹이다 4중의 관이 다 상하 사방을 둘러싼다. 관을 묶는 데는 세로 두 번 가로 세 번 묶고 은정은 매한 묶음에 하나씩이다. 잣나무로 만든 곱은 잣나무의 머리로 만드니 그 길이는 6척이다.[天子之棺四重, 水兕革棺被之, 其厚三寸, 柅棺一梓棺二, 四者皆周, 棺束縮二衡三, 衽每束一, 柏槨以端, 長六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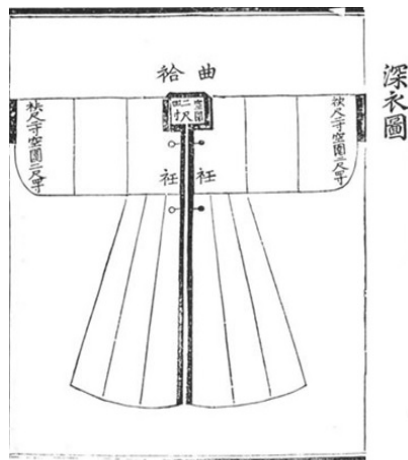
49) 小要 : 棺과 관 뚜껑의 모서리를 이어 붙이는 도구인 衽으로, 옛날에는 관에 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를 깎아 만든 이 衽과 가죽 끈을 썼다. 衽의 모양새는 양쪽 끝은 크고 가운데는 가늘어서 나비 모양으로 생겼는데,漢나라 때에는 小腰라고 불렀으며, 우리말로는 나비은장이음이라고 부른다.

50) 韓百謙, 『久菴遺稿』上, 「深衣說」, p.164.

51) 鄭經世, 『愚伏集』卷9, 「答權仲明(昉)論深衣(戊辰)」, p.176, “禮所謂衽當旁者, 謂衽之兩旁相當, 非謂衽在身旁也.”

또 『예기』, 「옥조」에 “심의를 袂가 셋이다.”⁵²⁾라고 하였는데 여러 학자들은 대부분 허리둘레라고 해석하였다. 내가 본문의 文義를 자세히 살펴보니, 만일 “심의를 허리둘레는 袂의 3배이다[深衣腰三袂].”라고 하였다면 여러 학자들의 말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다만 “심의를 袂가 셋이다[深衣三袂].”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허리둘레라고 설명하였으니 어찌 억측이 아니겠는가? 내 생각에는 소매부리[袖口]를 袂라고 한 것 같다. 좌우 소매에 이미 袂가 있고, 양 소매 사이에 있는 방령은 소매부리와 같기 때문에 袂가 세 개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아마 심의에 방령을 단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말한 것 같다.⁵³⁾

[그림 3] 久菴의 방령 심의도



이러한 주체적인 해석을 통해 구암은 목둘레가 네모반듯한 方領 深衣說을 제시하게 되었다. ([그림 3]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방령 심의설에 나타난 구암의 경전 해석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52) 『禮記』, 「玉藻」, “深衣三袂, 縫齊倍要, 袪當旁, 袂可以回肘”

53) 韓百謙, 『久菴遺稿』上, 「深衣說」, p.165.

첫째, 원문에 충실하여 주석에 함몰되지 않고, 『예기』 경문의 본래 의미를 파악하려는 주체적 학문태도이다. 구암은 당시 조선에서 예의 기준서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주자가례』에 의문을 제기하고, 주석을 배제한 『예기』 원문만을 가지고 문의를 해석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이론을 완성한 것이다.

둘째, 強解하지 않고 본문에 놓인 글자를 존중하려는 경전 해석방법이다. 그는 『詩經』이나 『說文』, 『爾雅』 등의 서적들을 이용한 훈고와 고증으로 경전 안에서 글자의 쓰임을 찾아내어 경전의 본의를 밝히려 노력하였다.

2. 方領 深衣說의 의미

구암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方領 深衣說을 서술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만일 禮를 좋아하는 학자들이 이것을 계기로 의문을 품어 실마리를 찾아내는 단서로 삼는다면, 古禮를 회복하는 데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⁵⁴⁾

『예기』의 본의를 탐구하여 심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했던 구암은 자신의 새로운 심의설이 고례로 복귀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원하였다. 이를테면 구암은 심의란 예를 갖추는 하나의 형식으로, 예를 갖추기 위해서는 근본이 되는 옛 제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구암의 방령 심의설을 두고 학자들은 그것에 동의하거나 비판하는 등 상당한 논란을 한 바 있었다.

鄭經世는 『愚伏集』, 「答權仲明」에서 경문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했다고 비판하였고⁵⁵⁾, 金長生은 「疑禮問解」에서 『주자가례』 본문의

54) 韓百謙, 『久菴遺稿』上, 「深衣說」, p.166.

55) 우복은 구암이 경문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했다고 보고 있으며 그

심의 제도가 『예기』, 「옥조」 및 「심의」의 것과 다르지 않아 深濶의 뜻을 잃지 않았는데, 무엇하러 굳이 새로운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비판하였다.⁵⁶⁾ 鄭述는 『寒岡集』에서 그의 해석이 제도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구암의 심의설을 비판하였다. 또한 徐有集(1764~1845)는 『林園十六志』에서 구암 심의설의 네모난 것이 억측이라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規의 경우 소맷부리에 이르러 약간 둥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유독 曲袷만 반드시 정방의 형태를 만들어야하는지 반문하며 함부로 일설을 만들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成海應(1760~1839)은 『研經齋全集』, 「深衣考」에서 구암이 ‘衽’에 대한 해석을 억측하였다고 비판하였다.⁵⁷⁾

[그림 4] 허전 초상



[그림 5] 이익 초상



이에 반해, 柳馨遠(1622~1673)은 『磻溪隨錄』에서 한백겸의 심의설을

가 죽어 시비를 변론할 수 없음을 아쉬워하였다. (鄭經世, 『愚伏集』 卷9, 「答權仲明(昉)論深衣(戊辰)」, p.176. 참조.)

- 56) 金長生, 『沙溪全書』 卷35, 「疑禮問解·深衣」, “以家禮本文裁之, 不悖於玉藻及深衣篇, 亦不失深濶之義, 何必創意新製與家禮有異也.”
- 57) 成海應은 구암이 억지로 풀이하였으며, ‘衽’에 대한 해석은 합당치 못해 심의의 본래 뜻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 하였다. (成海應, 『研經齋全集』(『韓國文集叢刊』 276) 外集 卷15, 「禮類·深衣考」, p.37, “案韓氏說, 多涉強解, 先儒或短之, 盖以禮服喪服之衽. 釋深衣之衽, 已不相當, 且結紐之制, 未知濶古有此.”

그대로 따른다고 하였고⁵⁸⁾, 李灝(1681~1763)은 구암의 설에 따라 방령 양식의 심의를 착용하였다.⁵⁹⁾ 李圭景(1788~?)은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구암의 심의를 두고 하나의 의복으로 입을 만하다는 견해를 보였다.⁶⁰⁾ 이들은 모두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인 바, 모두 『예기』의 본뜻을 밝히려 한 구암의 자세를 인정한 것이다. 그 후 한백겸의 심의제는 그 맥이 계속 이어져 直領深衣와 더불어 근래에 이르기까지 두 개의 큰 맥을 이루며 널리 사용되었다.

앞에서 제시한 久菴의 方領 深衣說의 의미를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경전 해석에서 字意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박한 고증을 통한 해석으로 方領深衣 양식이라는 새로운 심의제를 만든 독창성을 들 수 있다. 둘째, 당대는 물론 후대에까지 심의설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증폭시켰다는 점이다. 셋째, 후기 실학자들의 실용적 복식 개념의 이론적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IV. 方領 深衣說의 후대 수용과 그 추이

李德懋(1741~1793)는 『靑莊館全書』에서, “심의를 매우 간편한 옷으로 상하가 같은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을 꺼리지 않고, 길흉에 같은 제도를 사용하며 남녀가 같이 입을 것을 혐의치 않으니, 그것은 척수에 관계없이 인체의 장단에 따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사람은 척수에 얽매어 (넓고 길게 만들어서) 그 넓고 긴 것을 감당하지 못해 거의 수족을

58) 유형원은 그의 『磻溪隨錄』 卷25, 續篇上에서 “심의를 한 씨의 설에 의한다 [深衣依韓氏說].”는 제목 아래 구암의 심의 설을 인용하였다.

59) 현재 남아 있는 李秉休(1742~1802)가 그린 이익의 초상화를 보면 방령심의를 입고 있다. (강경원, 『李灝』,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2, “이익 초상화 [그림 5]” 참조.)

60) “抱方負繩 … 柳馨遠磻溪亦嘗取韓說. 大抵韓所定者, 雖不知合於古者深衣之制, 而自爲一衣, 儼然可服.”(한국고전 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형편에 이르렀다”⁶¹⁾고 비판하면서도 심의를 四禮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礮溪 柳馨遠도 구암의 설을 취하였다고 하면서, 구암의 방령심의를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입을 만하다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柳馨遠은 『礮溪隨錄』, 「衣冠制度」에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거리가 4천 리도 채 안되고 참으로 五服諸侯⁶²⁾나 다름이 없는데 衣冠은 부끄러울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의복의 그림과 모양을 갖추어 올리니 청컨대 이것을 工曹에 내리고, 전국에 널리 알려 의복을 고쳐 만들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심의는 구암의 심의설을 따른다고 하였다.⁶³⁾ 조선후기 지배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경세론을 펼친 그의 국가개혁론 가운데 복식에 관한 내용은 결국 구암의 심의설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유형원의 사상과 국가 건설안이 담긴 『반계수록』은 그의 생존 시에는 거의 알려지지 못하고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새롭게 조명을 받은 것은 실학자들이 활약했던 18세기에 이르러서였다. 따라서 그의 이러한 복식관이 이익과 그의 제자 安鼎福(1712~1791)에게 영향을 준 것은 물론 다른 실학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柳徽文(1773~1833)은 그의 문집 『好古窩文集』에 방령심의를 수록하였다. 그는 심의제를 논하면서 『예기』의 각 구절에 대해 중국과 한국의 여러 문헌을 이용하여 고증을 한 후 자신의 심의 만드는 법을 기술하였다. 수록된 방령심의를 구암의 방령심의로부터 200여 년이 지난 후에 그 맥이 이어져 다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⁶⁴⁾

61) 李德懋, 『靑莊館全書』(『韓國文集叢刊』 257) 卷8, p.143.

62) 五服諸侯: 王畿를 중심으로 5백 리마다 한 구역씩 설정했던 곳의 제후. 오복은 侯·甸·綏·要·荒, 또는 侯·甸·男·邦·采라고도 한다. (『書經』, 「益稷·康誥」. 참조.)

63) 柳馨遠, 『礮溪隨錄』 卷25, 「續篇上」.

64) 鄭혜경, 앞의 책, 1998, p.132. 참조.

그 후 19세기에 이르러 방령심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許傳(1797~1886)은 『士儀』에서 구암의 방령심의를 보완하여 양 쉼이 여며 지며, 깃의 네모난 모양이 길어진 형태의 방령심의를 제시하였다.⁶⁵⁾

실학파적 학문 경향을 지닌 朴珪壽(1807~1876)는 크게는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로부터 작게는 金石·考古·書畫·服飾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연구하며 實事求是를 추구하였다. 그는 의복에 있어서도 실용을 중시하여 “성인이 문물을 제작할 때 무엇보다 실용을 중요시하고 문식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으니 실용이 없다면 부질없이 문식할 수 없다.”⁶⁶⁾ 고 하였다.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사대부가 집에서 입는 각종 평복을 중심으로 고례와 부합하는 이상적인 의관에 대해 논한 『居家雜服攷』⁶⁷⁾를 저술하였다. 그는 당시 의복이 선왕의 제도와 경전의 제도에 크게 어긋난다며 최소한 예복만이라도 古制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실용적이면서 철학적 의미를 구현하면서도 고제에 맞는 의복으로 심의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심의를 착용했을 때 마음가짐 및 몸가짐의 변화를 「深衣廣義」에서 “외부에 자극을 받으면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마음이 움직이면 반드시 행실에 변화가 나타난다.”⁶⁸⁾고 하였다. 즉 심의를 입음으로써 심의에 내포된 의미에 마음이 움직여 군자다운 용모와 행실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심의에 대해 많은 철학적 의미를 부여한 그는 구암의 심의가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보완하여 쉼이 있는 交衽 양식의 방령심의를 만들었다.

방령심의는 조선 말기에 李恒老(1792~1868)를 중심으로 한 柳重教(1821~1893), 崔益鉉(1833~1906), 柳麟錫(1842~1915) 등 주로 화서학과를

65) 방령심의를 입은 허전의 초상화가 현재 경기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림 4』 참조.) (경기도박물관, 『초상, 영원을 그리다』, 경기도박물관, 2008, p.104.)

66) 朴珪壽, 『居家雜服攷』(『韓國禮學叢書』 85), p.1233.

67) 『居家雜服攷』의 저술배경에 관해서는 김명호의 「환재 박규수 연구 (2)」(『민족문화사연구』 제6호, 민족문화사학회, 1994.)에 자세히 연구되어 있다.

68) 朴珪壽, 『居家雜服攷』, p.1297, “有接乎外者, 必感乎中, 有感乎中者, 必見乎行.”

주축으로 한 위정척사 사상가들에게 널리 착용되었다. 한말의 위정척사론자들은 유교사상에 의거한 전통 사회 질서와 禮俗을 유지하기 위하여 복제의 개혁을 반대하고, 전통 복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적 성향을 보였다. 이들은 의복이란 몸의 威儀를 갖추고 남녀, 귀천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서양의 복식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조선인이 서양화되어 오랑캐로 변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마음가짐과 자세를 바르게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사대부의 최고 예복인 심의를 즐겨 착용하였다.⁶⁹⁾ 즉 이들은 전통복제를 회복하려는 의도로 방령심의를 집단적으로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구암의 심의설은 당시는 물론 후대에까지 격론의 파장과 영향을 끼쳤으며, 바로 방령양식의 심의제를 형성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구암은 『예기』에 실린 심의제가 본래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주와 소를 달아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보았다. 그는 주자 만년의 설과 『주자가례』에 나와 있는 것이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두고 『주자가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의례』의 「상복」, 『시경』, 『이아』 등을 근거로 고증적 태도를 통해 字意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예기』 본문을 정밀하게 해석하였다. 그리하여 구암은 古禮에 부합하고 착용하기 편한 심의 연구를 통하여 독자적인 심의설을 제기함으로써 후대까지 심의와 관련한 관심과 논의를 증폭시켰다. 더욱이 구암이 제기한 방령심의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실용적 복식 개념의 단초를 제공한 바 있다. 나아가 그의 문제 제기는 『예기』

69) 정혜경, 「한말 위정척사 사상가의 복식문화소고」, 『服飾』 제24호, 한국복식학회, 1995, pp.51-57. 참조.

주소와 『주자가례』의 잘못된 주석을 비판한 의식과 맞물리면서 이후 『예기』의 심의제를 회복하려는 방향으로 연결되어 연구되기도 하였다.

이 새로운 양식의 심의제는 구암 이후에 유학자들에게 널리 착용되었다. 張顯光(1549~1637)의 「拜門錄」을 보면 그가 구암의 심의를 제작해서 입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⁷⁰⁾ 특히 구암의 방령심의를 유형원 등 여러 실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이후에 유취문과 박규수, 허전 등은 구암의 설을 수용하여 옷깃을 여밀 수 있는 보다 실용적이고 편리한 형태로 변화·발전시켰다.

19세기 중엽에 오면 이항로와 그의 문인들 역시 방령심의를 착용하는데, 이는 민족적 위기의 대응으로 고례의 회복을 통해 유교의 사회규범을 존속하려 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⁷¹⁾ 이처럼 독자적인 구암의 방령 심의설은 조선 후기 실학자들에게도 영향을 주기도 하였지만, 한편 심의를 해석하는 그의 방법이 훈고와 고증 과정에서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⁷²⁾

70) “이 때 선생이 심의와 幅巾을 새로 만들었으니, 이는 芝山 曹好益과 淸州 韓百謙의 제도를 따른 것이었다.” (張顯光, 『旅軒集』(『韓國文集叢刊』 60), p.440. 참조.)

71) 정혜경, 앞의 책, 1998, p.148. 참조.

72) 유권중, 앞의 논문, p.100. 참조.

<參考 文獻>

- 『宣祖實錄』 『國譯 光海君日記』
 『禮記』 『儀禮』 『書經』
 權斗經, 『退溪先生言行錄』,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7.
 朴珪壽, 『居家雜服攷』, 『韓國禮學叢書』 85(慶星大學校 韓國學研究所 編), 民族文化, 2011.
 成海應, 『研經齋全集』, 『韓國文集叢刊』 276, 2002.
 李裕元, 『林下筆記』,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1.
 李 滉, 『退溪集』, 『韓國文集叢刊』 30, 民族文化推進會, 1991.
 張顯光, 『旅軒集』, 『韓國文集叢刊』 60, 民族文化推進會, 1991.
 鄭經世, 『愚伏集』, 『韓國文集叢刊』 68, 1991.
 鄭 述, 『寒岡集』, 『韓國文集叢刊』 53, 1991.
 曹好益, 『芝山集』, 『韓國文集叢刊』 55, 1991.
 ———, 『家禮考證』, 『韓國禮學叢書』 4(慶星大學校 韓國學研究所 編), 民族文化, 2011.
 韓百謙, 『久菴遺稿』, 『韓國文集叢刊』 59, 民族文化推進會, 1991.
 許傳 著, 韓國古典儀禮研究會譯 註, 『國譯土儀』, 보고사, 2006.
 丘 濬, 『家禮儀節』, 四庫全書存目叢書經部, 禮類; 114, 齊魯書社, 1997.
 朱 熹, 『家禮』, 학민문화사, 2001.
 司馬光, 『書儀』, 『叢書集成』, 商務印書館, 1930.
 鄭 玄, 『禮記』, 『十三經註疏』 5, 上海古籍出版社, 1993.
- 강경원, 『李瀾』,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2.
 경기도박물관, 『초상, 영원을 그리다』, 경기도박물관, 2008.
 고영진, 「17세기 초 예학의 새로운 흐름-한백겸과 정구의 예설을 중심으로」, 『韓國學報』 18, 일지사, 1992.
 ———, 『조선 중기 예학사상사』, 한길사, 1996.
 김명호, 「환재 박규수 연구 (2)」, 『민족문화사연구』 제6호, 민족문화사학회, 1994.

- 남명진, 「구암 한백겸」, 『한국인물유학사』 2, 한길사, 1996.
- 유권중, 「다산 정약용의 심의설 연구」, 『退溪學報』 제105집, 퇴계학연구원, 1999.
- 이승연, 「丘濬의 예학에 관한 고찰: 『家禮儀節』을 중심으로」, 『東洋禮學』 제11집, 동양예학회, 2003.
- 정혜경, 「한말 위정척사 사상기의 복식문화소고」, 『服飾』 제24호, 한국복식학회, 1995.
- , 『深衣』, 경남대학교출판부, 1998.

국사편찬위원회 (<http://www.history.go.kr>)

한국경학자료시스템(<http://koco.skku.edu>)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한국역대인물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index.aks>)

Abstract

Study on Guam Han Baek kyum's Bangryung Simeuisul
- in contrast to Joseon Dynasty's Simeuisul / Chi Keum Wan*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Simeuisul in middle Joseon period, highlighting Kuam's own way of analyzing scriptures through Bangryung Simeuisul, and to inquire into the affects and special features of Bangryung Simeuisul.

Among 『Yegi』, Simeuisul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subject to study for many generation of confucianists. Simeui transmitted from Samguk era, and was worn as a mourning gown or worn in sacrificial rituals, but after orthodox neo-confucianism was introduced in the late Koryo dynasty, it was worn as a formal dress for men of noble family according to Zhuxi's 『Garye』. Simeui contains meanings such as 'rectifying human nature by straight and even shapes', and 'Yin-Yang', the source of changes in all creations.

The contents about Simeui in 『Yegi』, 『Okjo』 was so simple that Junghyun and Gongyoungdal added notes to help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words, however the notes made it more confusing. Consequently there were a lot of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Simeui between the scholars in the next generation, and the point of issue was 'sokimgubyun' and 'imbangdang' 'gokgub'.

Guam said the Simeui system was written clearly in 『Yegi』, that it is not hard to understand, but it was distorted by different annotators that the script lost its original meaning. Furthermore, Guam questioned 『Garye』 as it doesn't say the same as Zhuxi's 'man nylon euisul', and made a profound

*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of Sungkyunkwan Univ. / bingere@hanmail.net

investigation based on the original script of 『Euirye』, 『Shigyung』, 『Eiah』, He also valued the meaning of the letters, and analyzed 『Yegi』 precisely to make a new system of simeui, the Bangryung Simeuisul. This started a study of simeui that is not only comfortable to wear but also corresponding to the old manners at the same time, and it amplified an interest and discussion about simeui from that time till future generations.

Another meaningful thing is that it brought change to hap.p.en in real life by providing a concept of practical dressing to the post silhak scholars.

【Key words】 Guam, Han Baekkyum, 『Yegi』, 『Garye』, Simeui, Bangryung Simeui, Silhak

투고일 : 11월 6일, 심사일 : 11월 22일, 게재확정일 : 12월 4일